

잃어버린 '멋짐'

MBN

오지에 기자



2021
기자의 세상보기



관련 뉴스 캡처(제공=MBN)

중국의 한 언론사에는 기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한다. 그런데 이 언론사의 뉴스를 보기 위해 가입한 사람들의 수는 6만 명이 넘는단다. 도대체 이 뉴스의 작성자는 누구일까. 설마 AI? 혹시나가 역시나였다. 어떤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느냐에 따라 편향적인 결과를 가져오지만, 지금은 고려 대상이 아닌가보다. AI 뉴스는 객관적이라는 판단이 우세하다. 그만큼 넘쳐나는 뉴스 속에 기자가 쓰면 '왜곡

한다', '저의가 있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방증 아닐까. 미래 사라지는 직업 중 하나가 기자라는 말, 처음 들었을 때는 코웃음 쳤는데, 이젠 현실이 되고 있구나 생각에 씁쓸해졌다.

안타깝게도 이런 착잡함은 잠시 뿐이다. 매일매일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발제에 급급해 기자로서 가치 판단이나 보도 영향력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흐



관련 뉴스 캡처(제공=MBN)

릿해지곤 한다. 더구나 쓰나마나 보도를 할 때면 무력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고, 나도 밥벌이 수단일 뿐이지 하는 합리화가 시작된다. 연차가 쌓일수록 더 깨어 있어야 하지만 나태함의 무게는 천근만근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말을 들었다.

노량진 수산시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일본이 방출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날, 내가 찾은 곳이다. 발단은 이렇다. 보도국은 아침부터 분주했고, 국제, 외교안보, 해양수산에서 꾸러미 기사 지시가 이어졌다. 나에게 배정된 건, 일본 발표로 인한 업계와 소비자 반응이다. 충분히 할 만한 아이টে็ม으로 분위기 스케치 기사니깐 사실 ‘쉽게 할 수 있지 뭐~’라는 생각으로 현장에 갔다. 명게, 가리비, 참돔 등 일본 수입산도 곧잘 즐기던 수산물을 하나 하나 스케치하고, 이제 기사에 녹일 적당

한 인터뷰를 따면 현장 취재는 끝인데, 큰 산을 마주하게 됐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상인회에 인터뷰 요청을 드렸더니, 대변에 카랑카랑 높은 언성이 돌아온 것이다.

“노량진 썰렁, 불안한 소비자” 이런 기사 쓰러 왔냐 “말로만 어민들, 상인들 위하는 것처럼 하고, 언론이 우리 죽이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내가 작은 구멍을 잘못 건드렸나. 한번 무너진 독으로 새나오는 말들은 거침없었다. “아니에요, 상인분들 이야기를 들어야 진짜 문제가 뭐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잖아요” 나를 설득을 해보지만 역부족이다. 여기에 내 편은 없다. “기자 양반이 쓰면 뭐하나. 잘난 데스크들이 자기 생각대로 고쳐서 TV에 버젓이 나가잖아” “나는 선동하는 제목들이 더 싫더라” “지금 언론이 갈 곳은 시장이 아니라 수입할 때 제대로 검사를 하는지 항만에 가야 하는 거다” “업

한 데 와서 하나하나 소리를 왜 시키는지 몰라” 단순히 인터뷰 거절이 아니라, 날 것의 뼈아픈 말들이 그칠 줄 모른다.

나는 상인회 인터뷰 대신 소매상 인터뷰를 채워 그 날 배정된 기사는 어떻게든 막았다. 하지만 상인회의 이야기가 상당 기간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히 데스크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충격 받았던 건, 시청자들의 뉴스 소비 수준이 높아졌는데 뉴스 생산자인 나, 언론 종사자들만 모르고 있었다는 데 있다. 반복되는 취재 관행으로 인한 가치 판단은 여전히 1차원적이고, 경험론에 머물고 있고, 그 사이 알아서 봐주던 시청자들은 뉴미디어 등 대안을 찾아 속속 떠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안 남아있는 시청자를 놓고, 소숫점 한자리라도 뒤질까 지분 싸움만 치열하게 벌이는 게 현 TV 뉴스의 주소다.

최근 취업을 준비하는 인턴사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다. 이 친구의 꿈은 기자다. “왜 하고 싶어요?” 물으니깐 대변에 돌아오는 답이 “멋있잖아요”다. 순간 기자 지망생이었던 내 모습이 생각났다.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나로 인해 내 주변의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영향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나는 답을 기자에서 찾았다. 나의 뉴스리포트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 작은 시선과 시각이 가져오는 변화가 너무 멋있었다. 그런데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면서 영향력이 주는 희열 보다는 무력감과 책임감이 주는 경우가 더 많아졌던 것 같다. 이젠 들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은 ‘기레기’라는 말에 이어 형체도 없는 AI와도 경쟁해야 하는 지금, 내가 꿈꿨던 ‘멋짐’을 회복하기 위해 다시 치열해보고자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보면, 그 날 만난 시장 상인들의 반응도 달라지겠지. 🍷